

[ 종합 ]

전남도, 부산·경남과 손잡고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 모색

오늘 통영서 시·도지사 등 공동협의회... 남해안 벨트 논의

전남도가 남해안 벨트의 비약적인 발전을 불러올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을 위해 부산·경남과 손을 잡는다.

전남도는 13일 경남 통영시 마리나 리조트에서 박준영 지사와 허남식 부산시장·김태호 경남지사 등 3개 시·도지사와 의회위원장, 발전연구원장이 한 자리에 모이는 ‘제3차 남해안 발전 공동협의회’를 열고 동반 성장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3개 시·도는 남해안 지역이 공동번영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인 2012 여수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하게 된다.

남해안 해양 크루즈 산업 육성 등 3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관련 사업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하고 합의문도 채택할 계획이다.

여기에서 이날 회의에는 국제 관광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의 김태환 지사가 옵서버로 참석할 예정이어서 제주를 아우르는 남해안벨트 협력체 구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2012여수엑스포 유치 확정으로 남해안권이 비약적인 발전의 발판을 만든만큼 이번 회의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해안 섬연결 일주도로 건설, 남해안 고속화 철도 건설



대통합민주신당 지방분 의원은 12일 오후 광주시 남구 프라도호텔에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성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문화수도 새 사업 지속 발굴을”

어제 ‘성공 위한 토론회’

이병훈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12일 광주시 남구 백운동프라도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성공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역에서 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성공을 위한 당위성과 의미를 꾸준히 개발해야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확대를 끌어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 규모는 5조3천억원이지만 지역에서 꾸준히 타당성 있는 사업도 발굴과 비전을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문광부도 정부로부터 최대한 추가 재정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전남 중부권 4곳 산단 조성

강진 선전·장흥 해당 회진·보성 득량 800만㎡

전남 중부권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남도는 최근 ‘중부권 일반산업단지 조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열고, 강진 선전과 장흥 해당·회진, 보성 득량 등 4개소에 총 면적 800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단 조성사업은 농수산업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중부권 낙후지역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 경제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전남도 내 권역별 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이곳을 한방산업과 청정 농수산물 가공산업, 바이오 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며, 이달 말까지 개발계획 수립 등 산업단지 지정에 필요한 용역

을 발주하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산업단지를 공급해나갈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인접 권역과의 연계성이 좋고 민자유치 가능성이 큰 강진 선전, 보성 득량, 장흥 회진 등은 투자유치설명회, 민자공모 등을 통해 민간개발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전남도는 또 이들 3개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산업단지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공동으로 내년 중에 개발계획을 수립, 일반산업단지조리 미리 지정키로 했다.

한편, 이번 용역을 추진한 전남발전연구원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등은 중부권 산업단지 조성에 5천3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가 1조 2천77억 원, 부가가치 2천81억 원, 고용효과 1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홍희기자 redplane@kwangju.co.kr

혁신도시 이전 한전 직원들에 물어보니...

절반은 ‘가족과’

절반은 ‘나홀로’

나주에 조성될 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로 이주할 한국전력의 직원 중 절반 가량이 가족 또는 부부 동반으로 이주하며, 나머지 절반 가량은 ‘나홀로’ 이주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이와 함께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부분의 공공기관 직원들은 가족과 동반 이주하는 비율이 30% 내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나홀로’ 이주의 이유 대다수가 자녀 교육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2012년까지 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로 이전할 한국전력의 경우,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이

전 중 ‘가족 동반으로 이주하겠다’는 비율은 22%(313명), ‘부부만 이주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5%(366명)였다.

즉 47% 정도가 가족 또는 부부 동반으로 이주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나머지 절반 이상은 ‘나홀로 이주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전력 이전추진실 관계자는 “자녀들이 학교를 마쳤거나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직원들의 경우 가족과 함께 가겠다는 응답이 많지만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직원들은 부부 동반 또는 홀로 이주하겠다는 대안이 많았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

1면 ‘씨프린스호’서 계속

사고 당시 여객계장이었던 김본준(60)씨는 “삶의 터전을 순식간에 잃고, 수십년 동안 오염의 악몽에서 사는데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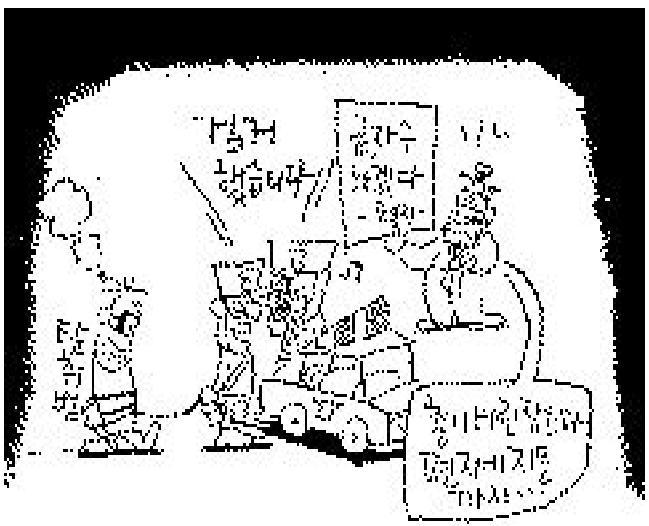
보상은 여수시 탈산읍·화정면 등지의 광어 등 가꾸리 양식 어민들에게 집중했다. 소리로 주민들은 대부분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도리 이장 신성태(60)씨는 “제2의 소리로 같은 피해가 없도록 태안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 지역에서는 충분한 보상과 함께 지속적인 방제활동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빛의 만경

- 김중두



수사팀 체면 살려주는 법안도 있다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합격률 1위. 개강 1월 2일. 주택관리사. 광주교시학원 본원 227-8003, 971-0002.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새종 행정고시학원.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종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 개강 1월 2일 (주,아).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구인·영업·모임·모집·시설금융·매입·부동산·매매·임대·전세·분양. 광주은행: 001-107-228160.

산영안내. 12월 15일(토) 광주도요인회 개세... 12월 17일(일) 광주도요인회... 12월 18일(화) 광주도요인회... 12월 19일(수) 광주도요인회... 12월 20일(목) 광주도요인회... 12월 22일(토) 광주도요인회... 12월 23일(일) 광주도요인회.

금당부동산. 223-7400. 매매·교환. 임대·교환. 김정기이하. 부동산을 구합니다.

공사입찰공고. 호남신학대학교. 2007. 12. 14. 1. 공사내역: 호남신학대학교... 2. 입찰 및 계약식: 입찰일(일) 광주(가)시(가)시... 3. 입찰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 4. 공사금액: 7,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